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 Effective Operation of Crimes Against Children

이 은 영*
Lee, Eun-You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keywords : 아동대상범죄, CPTED, 아동안전친화도시, 학교 시설 내 범죄예방, 지역사회 범죄예방

1. 서 론

2007년 발생한 안양의 초등생 납치 살해사건, 2008년 조두순, 2010년 김수철, 2010년 김길태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¹⁾ 한 범죄들은 우리 사회가 아동대상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범죄들은 아동들이 주로 생활하는 통학로를 포함한 학교 주변 공간이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아동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역시 이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결코 아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심지어 외부인이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 비교적 안전한 장소라고 방심했던 곳들이 심각한 범죄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아동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와 학교 주변 공간, 주거지 등이 가지는 범죄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본고는 아동대상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분석 및 세계적인 추세인 아동친화도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아동안전도시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범죄가 발생

*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중앙경찰학교 형법외래교수 greatay@hanmail.net

1) 본 연구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아동의 범위를 어린이 집과 학교 등 집 밖 공간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며, 타인에 의한 범죄의 노출 빈도수가 증가하는 시기, 즉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어린이 집과 초등학교 등의 교육 시설에 다니는 학령아동인 6세에서 13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하였다.

한 이후의 사후적인 대책보다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영역별 아동대상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가정 밖에서 외부활동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가정 이외에 아동의 주생활공간이 되는 학교와 그 주변의 통학로를 둘러싼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대상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학교 내의 아동대상범죄

(1) 학교 내의 아동대상 범죄의 현황

우리에게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되었던 ‘학교’는 학교폭력과 외부인의 침입 등으로 더 이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2014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한 해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5,895건으로, 전체 범죄의 0.3%에 해당하는 범죄가 학교에서 발생했다.²⁾

표 1 경찰범죄통계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 (단위, 건)

죄 중	강력범죄	절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기타
건 수	273	2,117	1,551	566	192	1,192

표1에서 보면 학교에서 강력범죄 및 풍속범죄까지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내 폭력범죄는 강력범죄보다 5배 이상의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중 아동대상 약취·유인의 경우 기타 내에 9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외부자의 학교 내 침입으로 인한 발생한 것으로 추론된다.³⁾ 또한 ‘2015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간의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안에서 75.5%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가 아동의 주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바람직한 성장을 돕는 교육의 공간이지만, 현대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는 위험한 공간이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학교 내의 아동대상 범죄예방정책의 실효성 문제

우리나라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대상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인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물리적 방안으로 CPTED기법의 경우 학교 시설에 도입하여 아동 이외에 교원까지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CTV설치, 자동개폐 출입문 설치 및 학교시설 개방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학교와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범죄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CPTED의 전반적인 환경개선과 범죄를 예방하지는 본래 취지보다 학교공간의 인위적 폐쇄나 감시의 기능으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좀 더 효과적인 CPTED의 방안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경찰청, 2014경찰범죄통계, 2015

3) 2013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교 내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내 외부인이 침입해 발생한 사건·사고는 3년간 총 5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44건에서 2012년 203건, 2013년 212건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전체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의 58.7%인 328건이 발생하여 가장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2013년 10월 25일 기사 재구성, 2015년 9월 29일 기사 검색.)

2. 지역사회 내의 아동대상범죄

(1) 지역사회 내의 아동대상 범죄의 현황

법무부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범죄유형으로 ‘약취·유인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특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대상의 약취·유인 범죄의 경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총 197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43.0%에 따르면 노상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로 나타나고 있다.⁴⁾ 또한 2014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08건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 43.8%이며, 그 다음이 노상 22.6%로 아동성폭력범죄 역시 유괴범죄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집 밖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⁵⁾

(2) 지역사회 내의 아동대상 범죄예방정책의 실효성 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범죄 및 성폭력범죄가 ‘노상 및 주거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장소들은 대부분 학교와 집 사이의 통학로와 관련된 곳이며, 아동들의 주생활 공간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대응방안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일 것이다. 그러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통학로나 주변 공간에 대한 정확한 범위나 시설의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마다 설정한 내용이 각기 다르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할 수도 없을뿐더러, 지역경찰과의 상호연계의 부재로 사후적 대책까지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III.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

1. CPTED 정책의 실효성 방안 확보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물리적 예방제도 중 CPTED기법은 학교 내 구성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와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어 있지만 기본원리들을 잘 살리지 못하고 학교를 오히려 지역사회와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CPTED기법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CPTED가 가진 기본원리에 충실하고,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에서 열린 공간으로서 학교 구성원들에 의한 보호와 예방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의 물리적 개선으로 인한 요새화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공간에 특화된 CPTED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한다. 학교의 공간이 과거와는 다르게 일률적이지 않고, 공간에 따른 특성화와 기능이 다른 만큼 CPTED를 도입할 때에는 시설자문 및 설계에 따른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건의한다.

2. 아동안전친화도시 정책의 제도화

4)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아동유괴 범죄 및 아동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통계자료에서는 아동유괴의 개념을 형법의 약취·유인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5) 대검찰청, 「2015범죄분석」, 2015.

가정과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환결설계와 같은 물리적 방법 외에도, 지역사회 전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안전친화도시는 약취·유인 및 성폭력 등 그 밖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아동의 주 생활공간이 가정과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전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현재 유니세프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벤치마킹 하여, 아동의 참여, 아동안전친화도시 조례의 제정, 아동대상범죄 전담 상설기구의 마련, 아동안전친화도시의 홍보,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기본 5가지 원칙으로 한다.

현재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아동은 범죄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성인에 비하여 활동범위가 지역사회로 한정되어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 전체를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청하 (2016) 학교와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20.
 박현호 (2014)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와 범죄과학, 박영사, pp.35.
 경찰청 (2015) 2014경찰백서, 사이버경찰청, pp48.
 대검찰청 (2015) 2014범죄분석, 대검찰청, pp33.